

보도	2023.11.28.(화) 조간	배포	2023.11.27.(월)		
담당부서	감독총괄국 ESG금융연구팀	책임자	국 장	홍석린	(02-3145-8300)
		담당자	수 석	황재학	(02-3145-8304)

금융감독원, 아시아개발은행(ADB) 요청으로 한국의 기후리스크 관리 및 감독 기법을 아시아 감독당국 및 중앙은행에 소개

- 금융감독원은 아시아개발은행(ADB)의 요청으로 한국의 “기후리스크 관리 및 감독 기법”을 아시아 국가 금융감독당국 및 중앙은행에 소개
 - ADB는 금융감독원이 추진중인 기후리스크 관리 및 감독전략이 아시아 지역내 모범사례로 소개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
 - 감독당국이 선제적으로 기후과학, 에너지 기술 분야의 전문가*와 함께 금융회사 뿐 아니라 제조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관련규제 대응을 지원한 것으로 세계적 유례를 찾기 힘들
- *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진 등

ADB 역량강화 워크숍 주요내용

- ◆ (일시/장소) : '23.11.27~29. / 캄보디아 시엠립
- ◆ (주최) ADB-캄보디아 중앙은행 공동 개최
- ◆ (참석대상) 아시아 국가 감독당국 / 중앙은행 직원
- ◆ (주요내용)
 - (기후리스크 관리 기법) 기후 스트레스테스트, 기후리스크 관리 원칙, 기후리스크 공시
 - (기후리스크 관리 사례) 한국, 일본, 필리핀,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, 태국

- 금융감독원 황재학 수석조사역(ESG금융연구팀)은 ①“기후리스크 관리 모형 개발 지원 프로젝트(프론티어-1.5D)”, ②“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지원 시스템(KTSS) 개발”, ③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등을 소개

- ① **(프론티어-1.5D) 기후리스크** 관리를 위한 모형을 개발하여 기업은 내부 관리 및 공시에, 금감원은 관련 노하우를 감독에 활용하는 프로젝트로, 기업(11개사*), 연구소, 영국대사관이 참여

* (금융사) KB, 신한, 하나, NH, 교보생명, 한화증권

(비금융사) SK이노베이션, 삼성바이오로직스, CJ제일제당, 한화솔루션, 한화토탈

- ② **(KTSS) 한국형 녹색분류체계(K-택소노미)**를 금융권에 쉽게 적용하기 위한 IT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10개사*가 참여

* KB, 신한, 하나, 우리, NH, BNK, DGB, JB, 키움증권, 이지스자산운용

- ③ **(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)** 금융회사 기후리스크 관리를 위한 감독지침으로 BCBS 원칙* 등을 반영하여 국제적 수준을 지향하고 있으며, 금융회사의 지침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

* 기후리스크 관리 및 감독원칙 (BCBS, '22.6월)

<참고>

금융감독원 「기후리스크 관리 및 감독기법」 주요내용

[가.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 지원 프로젝트(프론티어-1.5D)]

- 금융감독원은 '21년부터 기업 및 금융회사*의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 지원(프론티어-1.5D**)를 추진하여, 선제적으로 기후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,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음

* (1차) SK이노베이션, 삼성바이오로직스, CJ제일제당, KB금융, 신한금융, 이화여대, 영국대사관

(2차) 한화솔루션, 한화토탈, 하나금융, NH금융, 교보생명, 한화증권, 이화여대, 영국대사관

** 지구의 기온상승을 1.5℃ 이내로 제한하는데 앞장선다는 의미

- 이를 통해 기업은 자체 기후리스크 분석 도구 확보 및 분석결과 외부공시 대응 등이 가능해졌으며, 금융감독원은 습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·감독방안 마련에 활용
- 이화여대(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)는 참여기관들에 기후과학 및 에너지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, 영국대사관은 연구를 위한 주요 해외기관 등을 연계하는 역할 등을 수행

[나.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지원 시스템(KTSS) 개발]

- 금융감독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자발적 참여 금융사**와 함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시스템** 개발중

* KB, 신한, 우리, 하나, NH, BNK, DGB, JB, 키움증권, 이지스자산운용

** KTSS (K-Taxonomy Supporting System)

- 이는 다소 어려운 과학 및 기술 용어 기반의 녹색분류체계를 금융사 실무자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IT 기반 시스템임

- 현재 파일럿 버전 개발을 거쳐 시범 적용중이며, 향후 녹색분류 체계가 녹색 여신 등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

[다. 「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」 주요 내용 및 갱분석]

- 「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*」는 기후리스크 관련 감독지침으로서, 사업환경 및 전략, 지배구조, 리스크 관리, 공시 등에 대한 사항 포함

* '21년말 제정 이후, '22년말 BCBS의 "기후리스크 관리 및 감독원칙" 등을 반영하여 개정

- 금융감독원은 동 지침서를 기준으로 각 금융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현황을 파악중*이며, 금융사의 지침준수 실태는 단계적으로 개선중

* 금융회사의 관련 내규와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와의 차이점을 분석(갱분석)

- 향후 국내 금융사의 업무부담 및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글로벌 수준의 기후리스크 관리 능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계획